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트레이더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대비 포트폴리오 조정 중
- ◇ (초점)-빅피겨 눈앞에 둔 원화..당국 경고에도 거센 대외 역풍에 '흔들'
- ◇ (시장진단)-코스피 7 일째 팔아치우는 외국인..미-중 갈등보다 MSCI 비중 조정 거론
- ◇ (칼럼)-'낮은 물가 끌어올려야 한다'는 금통위원들..한은의 답은?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루이지애나의 케너 공항에서 방문을 마치고 전용기에 오르고 있다. (로이터/레아 밀리스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5월17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1,195.7	-1.6%	-6.7%	-4.1%	유로	1.1156	-0.7%	-2.7%	-4.4%
100엔 대비	1,084.3	-1.5%	-6.3%	-6.9%	엔	110.07	-0.1%	-0.5%	2.8%
유로 대비	1,332.1	-1.0%	-4.1%	0.2%	위안	6.8840	-0.8%	-0.2%	-5.3%
위안 대비	172.53	-0.3%	-6.2%	1.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다우존스	25,764.00	-0.7%	10.4%	-5.6%
코스피	2,055.80	-2.5%	0.7%	-17.3%	나스닥	7,816.29	-1.3%	17.8%	-3.9%
코스닥	714.13	-1.2%	5.7%	-15.4%	S&P500	2,859.53	-0.8%	14.1%	-6.2%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MSCI APxJP	502.66	-3.0%	5.4%	-16.2%
국고채 3Y	1.670%	-4.9bp	-14.7bp	-31.8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국고채 5Y	1.706%	-5.6bp	-17.8bp	-45.9bp	미국채 2Y	2.200%	-7.2bp	-29.8bp	60.7bp
국고채 10Y	1.822%	-5.1bp	-12.6bp	-52.1bp	미국채 10Y	2.393%	-8.0bp	-29.8bp	28.0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8(%)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8(bp)
유가(WTI)	62.76	1.8%	38.2%	-24.8%	한국 5Y	34.07	0.18	-3.99	-13.74
금(현물)	1,277.15	-0.7%	-0.4%	-1.5%	일본 5Y	20.83	0.33	-0.95	-3.34
TR상품지수	2,296.80	0.2%	-3.2%	0.0%	중국 5Y	48.20	2.80	-18.27	16.96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로이터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5월 20일(월)>

- 기재부, 대외경제장관회의

<21일(화)>

- 한은, 4월 생산자물가지수(06:00)
- 관세청, 20일까지 수출입 동향
- 기재부, 증권거래세 인하 시행
- 한은, 2019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12:00)
- OECD 경제전망(18:00)

<22일(수)>

- 한은, 1/4 분기중 가계신용(잠정)(12:00)
- 기재부, 바이오헬스 중점육성을 위한 혁신전략(12:00)
- KDI 경제전망(12:00)

<23일(목)>

- 한은, 1 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12:00)
- 한은, 3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12:00)
- 통계청, 1/4 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12:00)

<24일(금)>

- 한은, 4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 기재부, 재정관리점검회의

해외 주요 주간 일정

<5월 20일(월)>

- 일본, 1분기 GDP (08:50)
- 일본, 3월 산업생산 수정치 (13:30)
- 유로존, 3월 경상수지 (18:00)
- 미국, 4월 전미활동지수 (21:30)

<21일(화)>

- 호주중앙은행(RBA) 5월 통화정책회의 회의록 발간(10:30)
- 미국, 4월 주택판매 (23:00)
- 유로존, 5월 소비자 신뢰지수 잠정치 (23:00)

<22일(수)>

- 일본, 5월 로이터 단칸 (08:00)
- 일본, 3월 기계주문 (08:50)
- 일본, 4월 수출입 (08:5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23일(목)>

-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 4월 30일-5월 1일 회의록 발간(03:00)
- 일본, 5월 닛케이 제조업 PMI 잠정치 (09:30)
- 유로존, 5월 마르키트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 (17:00)
- 미국, 4월 건축허가 수정치 (21:00)
- 미국,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5월 마르키트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 (22:45)
- 미국, 4월 신규주택판매 (23:00)
- 미국, 5월 캔자스시티연은 제조업지수 (00:00)

<24일(금)>

- 일본, 4월 소비자물가지수 (CPI) (08:30)
- 미국, 4월 내구재 주문 (21:3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외환시장>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2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1200 원대 진입 가능성을 열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같은 전망은 달러/위안이 빅피겨인 7 위안을 넘어서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이번 주 예상 달러/원 범위는 1180-1220 원으로 넓게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 외환당국은 최근 환율 상승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장이 큰 의미를 부여하는 1200 원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도 고민이 적지 않다.
- 위안화가 7 위안대로 진입할 경우는 외환당국의 개입은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 위안화 약세가 잦아들지 않는다면 원화도 다른 흐름을 기대하기 어렵다.
- 21 일에 나올 이달 20 일 기준 한국 수출입 잠정치는 주목된다. 수출 부진이 확인된다면 원화 약세를 더욱 부추길 만큼 시장 심리는 매우 취약해져 있다.
-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완화 조짐을 보이지 않는 한 원화 약세 압력은 누그러지기 힘들다. 시장과 당국의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나겠지만 그렇다고 현재로서는 시장이 몰려설 상황은 아니다.

<채권시장>

- 이번주 채권시장은 시장을 움직일 만한 뚜렷한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제한적인 범위에서 등락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달러/원 환율 움직임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미-중 무역갈등 악화에 따른 글로벌 교역 감소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국내 수출 전망 역시 밝지 않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 다만 환율 상승에 따른 자동 완화 효과가 일정 부분 충격을 완충할 것이라는 진단도 적지 않다.
- 미-중 양국이 보복카드를 공개하면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됐지만 대내외 위험자산 가격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국내 채권투자자들은 당분간 관망 스탠스를 유지하며 글로벌 금융시장 움직임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음주 금융통화위원회 전망을 일부 반영하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

성이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과연 기존의 '금리인하 불가' 스탠스를 유지할지,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을지 등을 가늠하며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분석)-트레이더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대비 포트폴리오 조정 중

뉴욕 (로이터) - 투자자들이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

최근 장기간에 걸친 양국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며 투자자들은 무역 이슈에 민감한 주식들을 매도하고 미국 국채나 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 몰리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미국산 수입품 5,140 개 품목, 약 600 억달러어치에 대한 추가 관세를 5%-25% 부과할 계획이라고 13 일 밝혔다.

이에 투자자들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무역 전선에 더 많은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고 고려하며 투자 전망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퀀스 크로스비 프루덴셜금융 수석 시장전략가는 "아직도 현금 흐름이 있고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들과 방어적인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조정은 이후에도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식 투자자들은 또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에 실패한다면 기업들의 수익 전망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관세가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윤을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무역 합의를 둘러싼 계속되는 불확실성은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계획하거나 시행에 옮기기 어렵게 할 것이다.

일부 전략가들은 갑작스러운 투자 심리 변화 역시 일부 투자자들이 현금으로 발을 돌리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이클 오루크 존스트레이딩 수석 시장전략가는 "만약 일부 사람들이 현금에 투자하고 있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는 낙관론은 올해 증시 랠리를 뒷받침한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S&P 500 지수는 최근 몇 주 동안 다시 사상 최고치로 돌아왔으며 작년 12월 31일 이후 12.2% 상승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당분간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 역시 주가를 지지하고 무역을 상대적으로 안정시켰다.

시장 변동성은 급증했다. 미국 증시가 수개월 간 안정된 모습을 보인 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는 지난주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요일에도 다시 상승했다.

세계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들이 증시 내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특히 올해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기술주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월요일 애플, 보잉, 캐터필러는 모두 S&P 500 기업들 중 최고 수준의 낙폭을 기록했다.

한편 S&P 500 유틸리티 지수는 1.1% 올랐고 부동산 지수도 반등했다.

월요일 S&P 500 지수는 2.4% 하락해 1월 3일 이후 최대 일일 낙폭을 기록했으며 미국 국채 수익률은 6주래 저점으로 하락했다.

10년물 수익률은 3개월물 수익률 밑으로 하락했다. 이러한 수익률 역전은 지난 50년간 거의 모든 미국 경기 침체 전에 나타난 현상이다.

트레이더들은 관세 인상과 더불어 최대 미국 채권 보유국인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무역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국채를 매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차입 비용을 높이고 위안가치를 상승하게 하며 중국 수출업자들에게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이언 링겐 BMO 캐피탈 마켓츠 미국 금리전략팀장은 "수익률이 얼마나 내릴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많은 투자자들은 아직 최종 무역 협정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최근의 주식 매도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제이미 콕스 해리스 파이낸셜 그루 매니징 파트너는 "현재는 시장이 숨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무역 합의가 아예 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시장 전반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투자자들이 무역 협상 관련 불확실성을 언제까지 용인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다.

크리스티나 후퍼 인베스코 수석 글로벌 시장전략가는 "투자자들은 최선의 경우를 믿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양국 관계는 확실히 악화되고 있다"며 "이는 투자자들이 바란 금요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초점)-빅피겨 눈앞에 둔 원화..당국 경고에도 거센 대외 역풍에 '흔들'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연신 연고점을 갈아치우며 2017년 1월 이후 밝아 본 적 없는 1200 원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달러/원 환율 상승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자 16일 외환당국은 지난주에 이어 달러 매도 개입을 단행하며 원화 절하에 제동을 거는 시도를 했다. 또한 17일에도 시장참가자들은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추정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 양상에 원화가 약세를 보일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절하 속도가 가팔라지는 데 대해 일단 브레이크를 건 셈이다.

연초 대비 원화 가치는 달러에 대해 약 6% 절하된 반면 위안화(CNH)는 1% 남짓 절하하게 그쳤다. 물론 월간 기준으로는 원화(2%)보다 위안화 절하 폭(2.9%)이 크지만 일 중 변동성을 볼 때 원화 반응폭이 클 때가 종종 있다.

외환당국자 말을 종합해 보면 당국은 현재 원화 절하 속도가 빠르다고 판단하고 속도에 따른 불안 심리 또는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의 증폭에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원화에 대한 추가 약세 기대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주요한 심리적 저항선인 1200 원을 앞두고 시장 심리는 더욱 일방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당국도 이런 대목을 경계하고 있다.

당국은 환율이 올라가면서 투기세력이 불고 심리가 계속 악화되면 의도치 않게 외인 자본 이탈이 촉발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모니터링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이 악화일로로 치달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 행보를 선불리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최근 20 일간 위안화와 원화의 상관도는 0.9 수준으로 거의 절대적인 상황이다.

달러/위안(CNH)은 작년 11 월 이후 최고치로 올라 7 위안에 바짝 다가섰다. 원화가 빅피겨인 1200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과 유사하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중 무역갈등 구도에서 가장 민감한 통화는 원화로 프 라이싱 중"이라면서 "미-중 무역분쟁 결과 따라 한국의 펀더멘털 개선 또는 악화로 바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화의 양방향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은행의 외환딜러는 "최근 환율 상승과 관련해 솔 직히 우려가 있다. 환율이 오르는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이 없었고, 현시점에서도 심리와 수급이 일방 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면서 "달러당 위안이 7 위안 을 넘어선다면 원화도 답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외환딜러는 "달러 실수요가 계속 쌓이는데 현 시점에서는 외환당국이 심리를 조절해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할 듯하다"이라고 말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진단)-코스피 7 거래일째 팔아치우는 외국인.. 미-중 갈등보다 MSCI 비중 조정 거론

서울 (로이터) 박윤아 기자 -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MSCI EM 지수 비중 조정 반영을 앞두고 17 일까지 외국인은 7 거래일 연속 약 1 조 5 천억원에 달하는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외국인이 본격적인 매도에 나선 것은 지난 9 일로 미-중 갈등이 본격적으로 재점화됐던 때다. 미국은 지난 10 일(현지시간)부터 중국산 제품 2000 억달러 어치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

하지만 시장은 무역 갈등 장기화 가능성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던 터라 최근 외국인 자금 유출은 이보다는 이달 말에 있을 MSCI EM 지수 비중 조정에 따른 수급 영향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MSCI EM 지수 비중 조정은 28 일 장 마감 이후 반영된다. 중국 A 주 비중 확대에 따라 한국은 13.5%에서 올해 말 12.7%(MSCI 1 월 말 데이터 기준)로 낮아진다. 이때 한국에서 최대 약 35 억달러의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약 10 억달러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14 일 보고서에서 "남아 있는 패시브 자금의 기계적인 자금 집행으로 인해 외국인 순매도가 한 달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28 일(EM 지수 조정일) 전후로 약 1-2 조원 규모의 외국인 순매도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16일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4500억원가량 주식을 팔아치운 외국인들은 이중 전기·전자 업종에서만 2천억원 이상을 매도했다.

허재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무역 갈등 문제 외에도 MSCI EM 비중 조정을 보름 정도 앞두고 패시브 자금이 조정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5월 말 비중 조정이 끝난 6월부터는 외국인 매도가 과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효진 SK 증권 연구원은 "중국도 무역 분쟁 타격을 받고 있지만, 중국 ETF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며 "한국 증시 입장에서 MSCI EM 비중 조절 악재가 지나면 외국인 자금 유출이 진정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칼럼)-'낮은 물가 끌어올려야 한다'는 금통위원들.. 한은의 답은?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물가를 끌어올려야 할까?

2019년 한국 통화 당국의 숙제다.

금융통화위원회 내에는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시급하다'고 보는 위원들이 포진해 있다. 조동철, 신인석 위원이 대표적이다.

▲조동철 금통위원의 경고..'저물가 방치 안 돼'

특히 조 위원은 이달 한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저물가의 위험을 경고했다.

조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크게 벗어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통화당국이 정책을 조정해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수렴시키는 것이 인플레 타깃팅의 요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2012년 이후의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타깃팅이 요구하는 통화정책에 비해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했고, 그 결과 실제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을 하회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라 투자의 실질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 투자의 명목 수익률은 더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금융 안정을 고려한 보수적인 통화정책이 기대인플레이션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하면 향후 경제에 예상치 못한 부정적 충격이 가해질 때 디플레이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클라우드도 보리오 인용하는 한은 인사들..'물가 동학 달라졌다'

조 위원의 주장에 대한 한은의 답은 무엇일까?

한은 인사들과 이야기해 보면 슬그머니 클라우드 보리오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부문장의 주장을 꺼내 든다.

실질금리는 저축과 투자의 함수라는 게 현대 거시경제학의 기본 원리다. 저축이 공급이고 투자가 수요라면 실질금리는 이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키는 가격이 된다. 인플레이션은 저축과 투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과열 또는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가능자가 된다.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그 경제의 총생산이 잠재 생산을 상회한다는 의미가 되고, 하락하면 그 반대의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시장금리가 자연금리보다 높은지, 낮은지, 또는 균형점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보리오 부문장은 실질금리가 저축과 투자의 함수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실질금리가 통화정책, 그중에서도 기축국의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낮은 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으로 이어져 온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면 낮은 물가를 경제의 총수요 부족 때문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

세계화와 기술 발전과 같은 다른 요인이 물가를 끌어내린 것까지 고려하면 물가를 억지로 목표 수준까지 올리려는 정책(또 다른 통화 완화정책)은 오히려 실질 이자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각국 통화당국은 시장의 발작에 크게 신경쓰지 말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에 대비해 통화정책 여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일본 전철 따라가야 하나?..통화당국의 역할 고민해야

일본 사례를 보면 그의 주장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하락과 공급과잉에 의한 가격하락, 재고 증가 흐름 속에 경제 축소 사이클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통화정책 완화를 통해 물가를 끌어올리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특히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세계 경제 편입으로 국제 물가가 하락했던 것도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떨어트렸다.

이같은 주장은 이미 한은 내에 상당한 지지층을 얻고 있는 듯하다. 한은은 오는 6월에 열릴 BOK 컨퍼런스에 보리오 부문장을 초청해 그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문제는 일본의 전철을 우리가 밟는 것을 넘놓고 지켜봐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이다.

지나치게 낮은 물가가 일반인들의 기대심리에 고착됐을 때 이를 되돌리기 위한 비용은 적지 않다. 일본의 청년들에게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어색하다. 그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저물가가 삶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구조적 요인 때문에 물가가 낮아지는데, 물가가 낮으면 모두가 윈윈이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맞는 것일까?

20년 후를 떠올리면 두려운 느낌마저 든다.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